

happy new year 2021

존경하는 대구대학교 조합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열렸습니다.

새해에는 동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안전이 지켜지고 행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초유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전면적인 불안한 조건 속에서도 동지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일부 분야에서 소정의 개선과 발전이 있었지만, 대부분 우리의 일터에서는 각종 무원칙적 경영 행태, 부실한 위기 대처, 전망 제시 부재 등이 가중되어 현장에서 성실히 책임을 다하는 동지들의 고통은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일터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고 희망과 열정이 사라지는 것을 함께 체감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이 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합원 동지들의 굳건한 직무 수행과 일터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대학공동체의 퇴보를 힘겹게 막아낸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로 열린 2021년에는 지난해의 절망적인 현실들이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학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저해하는 부조리한 요소,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처우 정책, 봉건적 의식과 행태 등을 심판하고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17대 노동조합은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인격과 권익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선·후배 동지들이 피땀으로 건설하고 구성한 노조에 대한 부당한 도전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실천으로 응전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2021년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으로서는 격동의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조합원 여러분의 눈빛과 단결을 나침반 삼고 명령으로 받아안아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은 새해의 기운을 동지들의 단합된 마음으로 여기고 2021년에도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대학교 노동조합과 더불어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나갑시다. 동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 1. 1.

제17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위원장 이철환

[2021년을 열며 함께 읽는 詩]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박노해

돛단배는 풍랑을 맞지 않고는
자신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아무 고생도 하지 않으면
아무 전진도 하지 못한다

아무 고난도 겪지 않으면
아무 창조도 이룰 수 없다

아무 비난도 받지 않으면
아무 정의도 세울 수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